

# 아흔 살의 '근본적' 첫사랑, 그리고 '카사노비즘' 과 성에너지

-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 《불멸의 유혹-카사노바 자서전》
- 《잭 웰치, 위대한 승리》
- 《동시성의 과학, 싱크》
- 《미래 기업의 조건》

4월 하순 들어 언론의 지면을 가장 빈번하게 장식한 책은 올해 일흔여덟살 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이다.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 소설의 줄거리는 '제목처럼 다소 망측' <중앙일보>하다. 90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열네 살의 어린 창녀를 찾아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한 노인의 이야기에서 <중앙일보>는 "많은 원로가 작품을 발표하지만 '지금, 여기, 나'의 문제를 말하는 원로는 많지 않다"고 한결 두른 의미를 끄집어내면서, "마르케스는 현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이 소설이 반가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4월 20일자 <서울신문>은 "만일 책 읽기에도 투자수익의 강력한 저울질이 허용된다면, 그의 신작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은 '최소위험 최대수익'의 드문 투자처"라며 "《백년동안의 고독》으로 이미 1982년 노벨상을 탔고, 그가 구축한 마술적 리얼리즘의 후광으로 세계 문단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지는 마르케스가 20년 넘도록 인터뷰 때마다 쓴다고 호언했고, 10년간의 침묵 끝에 내놓은 게 이 책"이라고 그 까닭을 설명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정황적 요소들은 접어두더라도 이 책의 투자가치는, 정교한 서사구조와 시적 울림의 문장, 되씹고 씹어 편하게 받아 넘길 수 있도록 담아낸 묵직한 메시지로 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고 호평했다.

<한겨레>는 "선 살이 되기 전에 이미 500여 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노인은 발가벗은 채 잠든 소녀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돌아오고 만다"고 줄거리를 일러주며, "소설은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면서 노인의 욕정이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려 나간다"고 읽었다. 특히 "이 정력가가 '섹스란 사랑을 얻지 못할 때 가지는 위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될 정도로 아흔 살의 첫사랑은 근본적"이라고 해석했다.



희대의 호색한 카사노바의 《불멸의 유혹-카사노바 자서전》은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 지닌 '브랜드' 만큼이나 각 언론매체들이 호기심을 보인 서물이다. 4월 30일자 <경향신문>은 "성에너지는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카사노바와 그의 정신세계를 묘사했다. 신문은 "수백명의 여성을 사랑하고, 처형 장면을 바라보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딸과의 근친상간까지, 그의 삶은 과도한 성에너지에 귀신들린 듯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5편의 소설과 20편의 희곡, 수십 편의 중편소설을 썼고, 심지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기도 했음"을 들어 "카사노바에게는 다른 에너지도 있었다"고 색다른 해석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또 슈테판 츠바이크의 말을 빌려 "많은 여성을 사로잡을 능력을 갖춘 이 인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양면적이

며, 당대 주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비난하게 되지만, 관대한 미소를 아끼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츠바이크가 말했듯이, “자서전이 작가로서 위대한 승리를 카사노바에게 안겨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승리에도 아무것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카사노바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문학사에 길이 남은 여러 성장소설과 나란히 두기도 그렇고, 또 무시할 만큼 경박하지도 않다”고 결어를 맺었다.

〈동아일보〉 역시 ‘카사노바’를 평한 슈테판 츠바이크의 말에 밑줄을 그었다. “다른 작가들은 상상 속에서 조직해야 하는 일들을 카사노바는 자신의 따뜻하고 관능적인 육체에서 뽑아냈다. 카사노바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상황을 창조한 작가는 발자크를 제외한다면 아무도 없다” 신문은 또 “카사노바가 비록 허영에 젖긴 했지만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다”며 “그래서 도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경험과 기억 그대로를 썼던 것”이라는 츠바이크의 평가를 인용하며 공감을 표했다.



〈서울신문〉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를 2001년까지 20년간 이끈 CEO 잭 웰치의 경영지침서 《잭 웰치, 위대한 승리》가운데 ‘사업은 위대한 것이다. 성공 기업은 건강한 사회의 원동력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의 기반’이라고 한 저자의 말을 부각시키며 “잭은 우리에게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고 책의 의미를 간명하게 밝혔다. 〈서울신문〉은 또 “승리의 진짜 비결은 열정이며, 사람을 중시하는 인력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고, 현명한 해고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이 책의 키워드를 간추렸다.



5월 중순 들어 《동시성의 과학, 싱크》가 중앙일간지들의 관심을 모았다. 5월 13일자 〈국민일보〉는 “저자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발현되는 이유를 ‘싱크’, 즉 ‘동조현상’이라는 용어로 정의한다”며 “지휘자가 없이도 수중발레 선수들이 일치된 동작을 선보이듯이, 서로 다른 개체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같아지는 것을 동조현상으로 이름붙였다”고 개념을 소개했다. 또 책의 내용을 인용, “동조현상은 반딧불이떼, 행성들, 박동 조절 세포 등 진동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열어주고, 진동자들의 대화의 결과로 동조가 나타나 모든 진동자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서지적 평가에 앞서 ‘싱크’와 동조현상의 개념 설명에 지면을 할애했다. 신문은 특히 “책에선 수학·물리학·생물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동조 분야 연구 학자들의

활약상이 흥미진진하다”며 “참고로 동조는 수많은 구성요소로 이뤄진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복잡성 이론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했다.



‘잭 웰치’에 이어 기업과 개인의 흥망에 관한 또 하나의 경영지침서가 이달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교수의 《미래 기업의 조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과괴적 혁신’ 이론을 어떻게 현실세계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적 매뉴얼을 담고 있다”며 “항공, 교육, 반도체, 건강관리, 통신 등 5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미래기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크리스텐슨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을 ‘존속적 혁신’, 신규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을 재편하는 것을 ‘과괴적 혁신’으로 구분”했음을 들어, “이 책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파괴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에 대해 저임금의 이점이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과괴적 공격기업들을 개발하되, 한국정부의 개혁, 특히 통신 관련 산업에 대한 혁신 장려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특별히 소개했다.

〈문화일보〉는 이 책을 두고 “기업인이나 회사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에 걸쳐 중앙일간지 지면에선 《학교의 탄생》, 《사색기행》, 《10년후 중국》, 《마야》, 임동헌 소설집 《별》, 재미작가 이창래 씨의 세 번째 작품 《가족》, 소설가 권지예 씨의 세 번째 소설집 《꽃계무덤》, 《맨얼굴의 중국사》, 《지식의 대통합 통섭》, 《불패의 리더 이순신 그는 어떻게 이겼을까》, 《옛집기행》, 《빈방에 달빛 들면》, 《종족과 민족》, 이색적인 고전 가이드북 《울고 싶지? 그래, 울고 싶다》, 《지식》, 한승원의 《시방 여그가 그 꽃자리여》, 《정복자의 시선》, 시인 최영미의 첫 소설 《홍터와 무늬》,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벨슨 평전 《벨슨》,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사랑의 이미지》, 《소설법》, 《유대인의 역사》, 《만화 박정희》, 《야만과 문명,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의적, 정의의 흠치다》, 《일본인 취급설명서》 등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출판저널〉 편집부